

書誌統整事業論 (三)

劉 永 茲

2) 다음으로 「技術的인 見地」에서의 書誌統整의 必要性이란 如何히 이를 考察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企業經營 乃至는 公共行政의 合理化, 業務의 能率化라는 問題는 國際的으로 提起되고 있어서, 때는 巴야흐르 經營合理化의 「부음」(全盛時代)을 이루고 있는것인데, 이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經營의 標準化(standardization)의 問題가 介在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如斯한 時代的인 要請은, 圖書館이라고 하는 重要한 하나의 社會教育機關에라도 深刻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다는 事實이라 할 수 있어, 이는 우리로서 注目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即, 오늘날 圖書館은 그自體機能의 發揮過程에 있어서 全般에 亘하여 同時性을 갖고 奉仕의 圓滿을 期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해서, 이들은 그들自體가 지니고 있는 個性·特殊性을 考慮에 넣은 現在的인 位置와 條件에 對應하여 重點的으로 이를 運營해나가야 할것이다. 同時에 그것은 可能한 限度에서의 共通性을 發見 하므로써, 이에의 統一化·標準化를 志向 하여야 할것인데, 이는 經濟的인 立場에서 뿐만 아니라, 技術的인 見地에서도 호한 要請되고 있는바이다. 이처럼 圖書館 運營管理의 合理化라고 하는 課題는, 人間萬事의 合理化·機械化功能에서 惹起되는바 現代人的 機械에의 隸屬屈從이라고

하는 主客顛倒의 悲劇에 對한 또한거울 雪上加霜임을 免치 못한 點에서, 痛한 노릇이 아닐수 없지마는, 窮極에서 이는 運命的으로 機械化段階로 轉移 되는 것이어서, 따라서 여기에 必然으로 圖書館經營의 標準化라는 問題가 한 提起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며, 이리하여 이는 우리가 當面課題로 삼고 있는 書誌統整의 問題에서도 反映되어지지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特現下의 社會의 時代的인 關心事로서 提되고 있는 「더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인드 메이션」의 蒐集管와 傳達을 爲한 새로운 모습의 機能과 仕를 標榜하는 立場에서도 한層 더 明白하게 論議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이처럼 敍上的 現代의 趨勢와의 關聯性 書誌統整의 必要性이, 다음에서 提되는바 여러가지 技術的인 理由 때문에 請け 되는 것임을 이제부터 살펴 보겠다.

오늘날 圖書館의 組織管理와 運營技術에서 派生되는 重要한 問題中에서 比較 두드러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合理하고도 無定見的인 編目樣式과 分類系에 依據하여 이루어진 資料整理의 各分이 招來하는바 再編目(Recataloging) 再分類(Reclassification)事業이라고 呼課題를 앞에 놓고 永遠한 回歸線上에서 彷徨을 일삼는 어리석은 試行錯誤 및 이

來하는바 貴重한 豫算財源의 浪費의 反을 克服한다는 點을 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他方에 있어서 空間的 異性에 超然하여 文獻과 利用者와의 사이에서 이들 兩者를 迅速하고도 正確하게 互 媒介시켜주기 爲하여, 既往에 多元으로 亂立되었던 書誌形式과 方法的 統性이라는 것을 生覺하고, 이에서 導出 것이라고 想定되는 여러가지 利得點을 索해 보지 않을수 없는 것인데, 이에는 目錄式的 統一이라는 問題와 分類體系 統合이라는 問題들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勿論, 編目과 分類에 對하여는 各各 時的 및 空間的인 制約, 即 風土性과 傳統이라는 것을 沒却할수 없는 것이나, 樣의 統一을 通한 編目方法과 그內容 및 總事項 展開의 定型性, 그리고 이들에 熟達과 檢索方法 乃至는 資料利用에 關한 知識의 確立은, 必要하고도 可能한 것이다. 이리하여 언제나 누구든지, 어느의 어느 圖書館에 있어서도 同一한 方과 形式에 쫓아서 容易하게 資料와의 觸을 하게 할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서 그러한 事情이 圖書館側에 對하여주는 利은, 그資料 管理와 運用過程中에 있어 第一 많은 精力과 時間을 所要로 하는 組織行程으로부터 그러한 時間과 精을, 情報資料의 整理體系와 樣式的 統一·統合을 通한 資料處理의 一元化·機化에 依하여, 그資料運用面과 參考業務에 大幅轉換投入할수 있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前者 即 編目的 境遇에 있어는, 各種各級의 書誌센터가 發行하는 雜誌記述의 形式과 이들 各自의 傳統 및 例와 利用上에서의 方法的 差異性이라

는 問題가 介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의 作業過程上 第一 重要한 標目的 選定과 그形式的 採擇 및 資料에 對한 記述과 內容解題等에 亶한 方法 乃至는 形式面에서의 統一化가 結果로서 가져올 技術的 利便이란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如斯한 意味에서, 오늘날 論議의 對象거리로서 登場되고 있는바 高度의 技術的 正確性을 可期하는 集中的인 協同編目事業 (co-operative Cataloging System)과 印刷 카아드制(Printed unit card system)의 確立 및 이들의 利用普及의 問題가 여기에서 提起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編目形式的 不統一이 招來할바 資料處理上의 困難性和 情報源 探索, 資料의 交換·貸借上에서 派生되는 諸般隘路를 打開하려고 이러한 問題의 焦點에 對하여 世界的인 關心이 集中되었고, 이들을 討究主題로 삼는 여러차례에 亶한 全世界的인 會合이 繼續되어 왔었는데, 最近에 있어서의 그것들이, 1961年 7月 南美 「리오데·자·베이로(Rio de Janeiro)」에서 FID(Federation International de Documentation : 國際文獻情報機構)가 開催하였던 第26次 總會에서의 이른바 「더큐멘테이션」의 機能作用과 奉仕의 國際的인 紐帶化·統一化·標準化를 爲하여 I. O. 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 國際標準化機構)가 決議한바 勸告案의 採擇 等이며 同年 10월에 「파리」 UNESCO 會館에서 開催되었던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 國際圖書館協會聯合機構) 主催의 「國際目錄原則會議」의 根本的인 趣旨이었던 것이다.

또한 後者 即 分類的 境遇에 對하여 論及한다. 하더라도, 知識의 相對性이라고

하는 보다 本質的인 問題가 前提되어야 할것을 沒認한바는 아니나, 그것들은 同一事物에 對한 觀察者의 立場과 時間의 및 空間的인 制約이 그처럼 相對的인 結果로 露呈하게 하는 것이라 思料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各民族과 國家 아니면 各己 個體가 生覺하는 思想과 느끼는바 感情의 時空을 超越한 前後縱橫的인 不斷한 相互交涉을 通한다면 世界的인 共同 乃至는 統一된 方法으로 學的理論과 技術의 展開 및 相互感情의 流動은 可能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統一的인 分類體系의 生成은 必然的으로 可能하며, 이리하여 여기에 伸縮性, 融通性 있는 그와같은 體系構成은 要請하게 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이렇게 學國的 國際的인 統一의인 分類體系가 形成된다 하더라도 現實的인 當面課題로서는, 時空的인 條件으로 因한 이들 全體國家와 民族들의 特殊事情들의 全體에의 適應性, 伸縮性이라는 不得已한 點들을 우리는 또한 빠트릴수 없는바이다. 이런 點에 對하여는 各己 特殊한 專門圖書館의 專門的인 特殊資料의 分類와 整理組織에 局限된 範圍內에서 十分 展開될 餘地를 該統一의인 分類體系上에다 豫備的으로 留保하여 두므로써 全體의으로 拂에에 있어서의 그의 體制의 統一性·統合性은 期待할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體制와 精神과 性格에서 遊離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러한 措處는 또한 許容되어야 할 것이라고 生覺된다. 이렇게 하자면 自然 多岐하게 亂立되어 있는 多元的인 分類體系들을 包容 統合할수 있는 그 어떠한 統一的인 分類體系에의 歸納作用乃至는 既存의 諸種體系의 發展的인 解體와 이들의 混成溶融段階를 거친, 말하자면, 異質的인 成分들이

化學的變化的 處理를 經하여 全然 새로운 第三物質을 造成하듯이 革新的이고도 새로운 第三型의 分類體系의 創案이라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方便, 現在로서 世界的으로 影響力을 내고 있으며, 關心의 對象이 되고있는 分類體系는 周知하고 있는바와 같이 먼저 「D」이 十進分類表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略稱 D. D. C.)를 들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國際十進分類表(University Decimal Classification, 略稱 U. D. C.), 國會圖書館分類表(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略稱 L. C., 또는 L. C. C) 卡特展開式 分類表(Cutter's Expansive Classification 略稱 E. C.) 브라운식 分類表(Brown's Subject Classification, 略稱 S. C.) 블리스식 書誌分類表(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略稱 B. C.) 및 「랑가나탄」의 「콜론分類表」[Ranganathan's colon Classification, 略稱 Colon Class. 또는 C. C.)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就中 重要한 것으로서는 D. D. C. 와 U. D. C. 및 L. C. 들이라 할것이다. 특히 D. D. C. 는 十進法(Decimalism)에 基礎한 것으로서의 典型的 代表的인 分類體系이며 全世界의 圖書館을 對象으로 普及되고 있는 것이다. 傳하여지는 消息通으로는 그의 推定普及率은 美國公共圖書館의 96% 大學圖書館의 89%, 專門圖書館이 64% 本 D. D. C. 에서 展開되는바 知識體系構成에 作據하여 資料를 整理하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또 方便으로는, D. D. C. 修正 補委員會의 如斯한 推定報告가 있었음도 不拘하고, Aslib(Association of Special Libraries : 特殊圖書館協會)의 또 다 實態調査에 依한다면 其中에서, 科學技

分野의 特殊專門圖書館은 D. D. C. 보다는 Cutter 의 E. C. System 에서 發展한바, 非十進法(Non-decimalism)의 L. C. System 을 採擇하는 傾向이 濃厚하다고 하므로써 前示한바 專門圖書館의 D. D. C. 利用率 64%의 根據에 相反되는 報告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勿論 前示 D. D. C. 와 L. C. 의 長短에 關하여는 너무도 잘 周知되어 있는 事實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삼 長短되게 羅列시킬 必要를 느끼지 않는 바이다. 다만 U. D. C. 에 對하여 若干 普及하여 둔다면, 이것은, H. La Fontain 과 P. Ottlet 를 中心으로 한 書誌學者들이 全世界 文獻의 目錄을 作成할 것을 目的으로, 1895年, Brussels 의 國際文獻情報機構(F. I. D. 舊稱 Institut International de Bibliographie 略稱 I. I. D.) 의 會議席上에서 提唱한바가 因이 되어, 이에 適合할 分類體系를 比較檢討한 끝에, 學術의 急速한 進歩와 精密한 文獻內容의 處理에 對處하기 爲하여 學術進歩에 即應하여 融通性있게, 그러나 그의 統一의인 體制를 喪失함이 없이 隨時로 變改 使用하도록 D. D. C. 의 長點을 中心으로 그의 短點을 補足하는 試圖에서 構想되었던 分類 體系인데, 이의 特長은 詳細하고도 그主題의 多元性을 案出해 있다는 데 있는 것이며, 오늘날 이는 專門技術圖書館에서의 雜誌論文과 記事의 分類에 好適하며, 主로는 西歐羅巴를 中心으로 많이 普及되고 있을 뿐더러, 바야흐르 時代의인 關心事로 化하고 있는 Documentation 事業에서는 必須不可缺한 tool 로써 看做되고 있다. 1904年 美國圖書館協會의 全國年次大會에서는 本 U. D. C. 를 L. C. 와 綜合하여 大幅改訂된 새로운 體系로 樹立하자는 案이 提議되었던 것이나 棄却되고 말았었는데, 이事實은 우리에게

좋은 再省의 突發를 促求하게 되는 것이라 아니 할수 없다. 勿論 本大會는 美國人의 構成國體이므로 單一의인 國民感情과 意識의 潛在的인 作用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棄却될이 當然하였었을 테지만 이제까지 說明하여 온바 分類體系의 統合을 爲한 一連의 動向과 運動이 成功裡에 形成되기 爲하여는, 그方法에 있어서 모를지기 各國의 專門代表의 參加를 前提로 現用中인 各種의 分類體系에서 沒却乃至는 輕視하여 왔던 各民族과 國家乃至는 各級圖書館의 特殊事情을, 앞으로 構想되어질 그어떤 새로운 統一의인 分類表에서 最大限度로 反映시키는 方向으로 大幅的인 一大革新을 加하여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當爲의 世界에서는 超越하여야 할 各已 民族과 國民의 纖細한 感情과 自尊心의 可能한 限의 尊重이라는 點에 留意하면서, 全世界民族의 本事業에의 攄心坦懷하고도 全體的인 共同參與를 爲하여 그를 代表의 合同 아니면 文書往來를 通하여 緊密하게 提携하는 方向으로 本運動은 또한 推進되어야 할것이다.

書誌統整事業과의 密接한 關連性을 갖었다는 意味에서 分類體系의 統合運動論으로 論調가 急轉된 感이 있을지 모르나, 너무 飛躍됨이 없었기를 希望한다.

다음으로 書誌統整事業이 要請되는 技術的見地에서 본 또 하나의 理由로는, 文獻整備과 書誌 및 이들의 圓滑하고도 迅速한 運用을 爲한 工學的 補足手段의 應用이라는 것이 必然的으로 講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自然히 圖書館分野, 좀더 넓게는, 文獻界 一般으로 通用될 可能한 最大限度의 範圍에서, 譯字(tsansliteration) 問題를 包含한 用語가 國際的인 아니면, 最低限 國內的인 統一化와

共用性を志向하여,平易하고도 簡潔하게 整理되어야 하겠으며, 이점에 對하여 圖書界에서는, 이미 國際標準機構(I.O.S)에 依하여 某種의 勸告를 받은바 있었던 것이다. 特히, 圖書館業務와 奉仕의 近代化 乃至는 工學的修正의 要求는 屢述하였듯이, 그業務量의 擧가가 資料의 組織의 人 整備에 投入되는 現實을, 그러한 方法의 採用에 依한 書誌統整을 通하여, 大幅의 으로 止揚 緩和함에 있으며, 이리하여 迅速과 正確을 「못토」로 하여 遂行되어져야 할 本來的인 奉仕使命은 合理的, 能率的, 機械的으로 處理 遂行될수 있는 것이며, 그餘力으로써 새로운 奉仕面과 創造的인 새分野 開拓에 대한 注意와 精精力 集中을 또한 期할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奉仕面에서 書誌統整과 그의 機械化가 考慮되어야 하겠다는 點에 關한 하나의 端的인 事例로서는 圖書館이 利用者와의 最尖端의인 接觸點에 位置하여, 組織된 資料를 利用者에게 提供함에 있어서, 貸出節次上의 記錄 即, 書誌的인 處理를 寫眞式 이라던가 「펄칭·베소드」로 機械化 한다든가, 또는 參考業務의 合理化, 能率化를 期한다는것 等인데, 如斯한 方向으로의 現實止揚은 緊切히 要求되는 바이며 資料의 運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複雜하면 할수록 이에 있어서의 書誌統整의 必要度는 強烈하여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整備把握과 統整 없이는 眞正한 Reference 라던가 Circulation 은 不可能하다 함은 屢言한바 이지마는, 좀 더 具體的으로는 fact finding Service 라던가, 一次資料의 提供乃至는 二次·三次 資料의

探索提供을 使命으로 하는 Information Service 를 爲하여는 書誌統整을 통한 文獻情報의 相互 交換乃至는 互相貸借의 相互 協力過程은 不可避한 것이다. 또한 既述한바 있는 集書의 合理化·能率化의 問題와 近代의 産業技術의 革新에 있어서의 企業管理의 合理化, 科學化의 要請에 앞서는, 技術情報의 收集과 處理技術上, 本書誌統整의 「아이디어」는 缺 놓을수 없는 것이므로 해서, 結局에 있어서 如斯한 一連의 事態는 書誌統整이라고 하는 協業的인 方便과 技術을 通해서만 그 自體 圓滿하게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號에서 完結)

- ⑬ Villers, Raymond. The dynamics of industrial management. 1954. p. 66 ff.
- ⑭ 日本圖書館協會. 專門圖書館의 近代化 (圖書館雜誌 Vol. 56, No. 2, p. 93 ff 1962)
- ⑮ Tauber, M. F. and Associates. Technical Services in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 Pr., 1954. chap. xv.
- ⑯ Wilson, L. R. and Tauber, M. F. The University Library. 2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 1956. p. 449 ff.
- ⑰ UNESCO. UNESCO Bibliographical News. (vol. 9, No. 6, p. 11, 1960).
- ⑱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6 th ed. Chicago, A. L. A., 1958 p. 22.
- ⑲ 前園主計. アメリカ의 專門圖書館에 關한 情報과 資料의 探索. (日本國會圖書館編. Biblos, vol. 13, No. 2. p. 1-1962.)
- ⑳ 前園主計 op. cit. p. 4
- ㉑ 日本圖書館協會, op. cit. p. 65 ff.